

# “강하게 몰아칠 때가 있다면 천천히 할 때도 필요하다”

- 두 사트니에 코치

## 홍명보호 이구아수 캠프 외국인 코치 3인

두 사트니에 전력 분석 담당 코치  
템포 조절 승패 직결...현재 알제리 연구 중

이케다 체력 담당 피지컬 코치  
한국 신체조건은 세계 평균...애국심은 최고

데니스 영상 분석 담당 코치  
우리 팀 뿐만 아니라 상대 팀 분석도 내 몫



홍명보호에 승선한 외국인 코치 3총사(왼쪽부터 데니스 이와무라, 이케다 세이고, 안톤 두 사트니에 코치)가 20일(한국시간) 대표팀 숙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구아수(브라질) | 남정현 기자

축구대표팀 홍명보호는 철두철미한 분담과 협업으로 굴러간다. 브라질 포스 도 이구아수에서 진행 중인 대표팀의 동계 강화훈련에서 월드컵 코칭스태프가 처음으로 함께 했다. 특히 다국적 외국인 코치들은 주어진 역할에 매진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호평을 받는다. 주로 해외와 점검과 상대국 전력 분석을 담당할 안톤 두 사트니에(55·네덜란드) 코치, 선수단 체력 관리와 향상을 책임진 이케다 세이고(54·일본) 피지컬 코치, 영상 분석을 맡는 데니스 이와무라(35·브라질) 비디오 분석관은 홍명보호에 시너지를 불어넣는다. 20일(한국시간) 이구아수의 대표팀 숙소 바번 카타라타스 컨벤션 & 스파 리조트에서 3명의 외국인 코치를 만났다. 그들의 입을 통해 한국축구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 ●두 사트니에 “영리한 템포가 필요해”

홍명보 감독의 요청을 받고 러시아 안지 마하치칼라에서 함께 했던 거스 허딩크 감독에게 물어봤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한다. 한국에 가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그래서 합류를 결정했다. 사실 2006독일월드컵에서 한국을 이끌었던 디 아갈베르 감독과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에 갈 뻔 했는데, 아드보카트가 네덜란드에 남게 되면서 한국행 기회가 왔다. 속속생활만 봐도 한국 선수들의 특별함을 알 수 있다. 미팅과 훈련, 식사 등 모든 스케줄은 ‘팀’ 단위로 소화하더라. 러시아에 있을 때 선수단의 규율이 잡혀있지 않아 많이 힘들었는데 한국은 달랐다. 지금 대표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다. 아직 이름을 못 외워서 선수 얼굴과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보며 하나하나 외우고 있다. 작년 10월 브라질평과전에서 원쪽 풀백(김진수)과 현재 대표팀의 원쪽 원 포워드(김민우), 공격수 김신욱의 잠재력이 굉장히 좋다. 한국은 체력과 힘이 좋다. 신체 컨디션도 잘 갖춰졌다. 다만 유럽을 상대할 때는 보다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경우 2명의 센터백이 신체도 좋을 뿐 아니라 160여 경기를 함께 뛰었다. 템포를 단조롭게 해선 안 된다. 강하게 몰아칠 때가 있다면 천천히 할 때도 필요하다. 브라질평과전 때 한국이 전반 종료 3분여를 남기고 계속 몰아치다 프리킥 한 방으로 실점한 건 템포 조절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벨기에와 러시아에 대한 분석은 문제였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의 위치도 가까운데 많은 벨기에 선수와 함께 한 경험이 있다. 러시아에도 지인들이 많다. 알제리는 연구 중인데, DVD 영상과 자료들을 확보해 살펴봤다. 한국어를 못해도 축구라는 공통의 언어를 쓰고 있다. 소통에는 문제없다.

### ●이케다 “연대감과 팀워크, 세계 톱클래스”

올림픽과 월드컵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월드컵의 경우 K리그는 시즌 중이지만 유럽은 시즌 종료 이후다. 선수들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피로 회복과 휴식을 주고 몸을 만들어야 한다. 시즌이 진행 중일 때 대회에 임한 런던 올림픽과 브라질월드컵은 다르다. 또 경기에 계속 출전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교체로만 나가던 선수들까지 컨디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상황을 살피고 한데 묶어 주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의 이적에 대한 소식을 계속 지켜야 한다. 감독과 팀이 바뀌면 지도법도 플레이 패턴도 바뀐다. 이를 따라가다 보면 정신적인 부담이 커진다. 심리까지도 보살펴야 한다. 근육량, 체구, 몸무게, 키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한국 선수들의 신체조건은 세계 평균이다. 스피드와 힘, 지구력도 평균 이상이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힘이 있다. 일체감과 팀 연대감,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세계 톱 수준이다. 팀 정신은 홍 감독의 강조 사항이다. 이구아수 훈련에 참여한 선수들의 컨디션은 아직 70% 수준이다. 미국 LA로 건너가 치를 첫 번째 A매치인 코스타리카전까지 완벽하게 만들기 어렵다. 다만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 한다. 최상의 체력 증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5~6주 시간을 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 선수

### ●데니스 “국가의 소명으로”

브라질 클럽과 K리그 팀에서 꽤 오래 활동했다. 물론 대표팀 커리어는 짧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와 대표팀에 대한 접근법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둘 모두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대표팀은 국가와 국민적인 사명이 있다. (한국에서 2002한일월드컵 때 비디오판석관 활동을 하고, 나중에 이란대표팀을 이끈 압신 고트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가?) 당장 감독이나 평가가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지금은 한국축구를 위해 집중해야 한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0년 전만 해도 쿠리치바 클럽에서 유소년 코치를 하다가 지금은 한국 대표팀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지식을 쌓으면 기회가 닿지 않을까 싶다. 선수들의 심리상태와 정신력, 전술이 동일하게 향상돼야 한다고 본다. 대표팀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 임무는 영상에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서 우리 팀의 활동사항을 체크하는 거다. 물론 상대국 장단점의 분석도 내 몫이다. 그래서 난 비디오판석관이 아닌, 분석 코치라고 생각한다.

이구아수(브라질)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트위터 @yoshike3

## U-22 대표팀, 비매너 골 내주고도 4강 선착

(시리아)

AFC U-22 챔피언십 8강 시리아전 2-1 승



상대의 비 매너에 혀를 내둘렀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U-22 대표팀(사진)은 20일(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의 시아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2 챔피언십 8강전에서 시리아를 2-1로 꺾고 가장 먼저 4강 진출을 확정했다. 하지만 축구팬들은 다시 한번 터진 중동국가의 매너 없는 플레이에 격분했다.

논란은 경기 종료 직전 터져 나왔다. 한국이 2-0으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중앙 수비수 황도연은 헤딩 경향 후 차지과정에서 균형을 잃었다. 어깨부터 그라운드에 떨어졌고, 이내 고통을 호소했다. 한국 선수들은 공을 밖으로 걷어냈고, 경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황도연이 들것에 실려 나갔다. 시리아 선수는 곧장 한국 수비진 옆으로 길게 공을 걷어냈다. 페어플레이 원칙에 의거해 상대에게 공을 건넨 것으로, 여기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골키퍼 노동건에게 공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후반 23분 교체 출전한 상대 공격수 마르스키안인 중앙수비 뒤로 파고들면서 한국의 공을 가로챘다. 그는 한차례 간절한 드리블을 한 뒤, 노동건이 공을 받으려 나오면서 텅 빈 골문을 향해 오른발 슛으로 차 넣었다. 인플레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득점은 그대로 인정됐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그의 뻔뻔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르스키안은 잘못만 행동에도 두 팔을 치켜들며 세리머니를 했다. 다른 선수는 골방에 빨려 들어간 공을 재빨리 꺼내 하프라인에 놓아두기도 했다. 알 사티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빨리 사과했다. 그는 “경기 막판 나온 골 장면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반된 행동이었다”고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한국은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점점한 승리를 거뒀다. 대표팀은 이날 출전 선수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최전방 공격수만 황의조로 바뀌었다. 전반 초반부터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는 결과로 드러났다. 전반 3분과 11분 각각 백성동과 황의조가 연속 골을 터뜨리며 기를 꺾었다. 한국은 23일 밤 4강전을 갖는다.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편집 | 고창일 기자 ice@donga.com 트위터@mkh2357

올겨울 애가 축축하고 고개속인 남자들이 찾는 속옷!

2014년 신제품 **벌떡(핫나경) 팬티!** 고기능성 원단, 내내지 섬유

국내에서 개발한 기능성 원단으로 뛰어난 수축할 수 있는 패드로 된 제품입니다.

벌떡팬티(기능성 신소재 원단)를 구입시 옥링 4개를 무료 증정

고기능성 원단 32.5% **속옷**

음경바로 고환바로 오링은 벌떡팬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옥, 삼베, 바이오 세라믹의 조합으로 만년 음경과 고환이 바로 분리되어 숨고 땅이 차는 것을 막아 주고 장염 세균 등에 탁월한 도열을 주어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오랜시간 유지해 도열을 주는 시스템 속옷으로 고개속인 남성들도 10대의 열을 내뿜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벌떡팬티 한켠(3개) 구매시 사은품 벌떡팬티 1장 + 옥링 4개

대리점 모집중! 해외 바이어 상담환영

제품문의 : 1588-4101 / 010-7102-7070 / 010-8968-5877

따뜻한 내 아내! **옹녀 핫나경!!** 실물과 같은 여인!!

2014년 신제품

밤이 외로운 남자를 위해! 내 여인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1위 차별화 된 1위 제품!**

2014년 최신 제품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이며 폴리우레탄 재질로 무독성이고 견고하며 촉감부터 더합니다.

원안선, 독신자, 장애인, 출생지, 해외근로자 외로운 남성들에게 대원형 받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인... 써 본 분만 아는 여인!

무독성! 신소재로 절대 타지 않습니다.

구매시 사은품 증정 대리점 모집중! 해외 바이어 상담환영

파격적인 가격! 내 여인 인형!

제품문의 : 1577-4101 / 010-8952-4114 / 010-6380-5877

**나만의 女人** 아름다운 피양새 신장160cm

신제품출시! 특별할인행사!

나만의 여인을 만나면 신비롭고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 경지를 개척하는 당신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고객님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남성들이 원하는 3대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두겹으로 튼튼하고 부드러운 탄력성이 매우 우수한 최신형 튜브인형을 신제품으로 제작 하였습니다. (성인남성용 제품)

※ 제품의 자신감으로 평생 A/S 보장합니다

♥카드 결제 환영♥

고려물산 공장직영 010-2655-1326 010-5608-1237

동명 / 301-0119-5133-11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92길 54-9 070-8868-2933

- 탄트라 비전(秘傳) www.bisajung.com

**오직 남성만을 위한...** 비법중의 비법(秘法), 비사정비법(非射精秘法)

국내 최초로 [비법전수센터]를 개설

오직 스승과 제자사이에서 은밀히 전수되어져던, 밀의 적 수행법인 탄트라를 해설한 책인탄트라 비전(秘傳) 부제: 비사정비법과 밀티오르가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탄트라 열풍을 반영하듯 [탄트라 비전(秘傳)]을 출간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 탄트라비전연구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비법전수센터]를 개설하여, 남성들의 성(性)건강은 물론 탄트라 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명상법 그리고 호흡법 등 탄트라 비법스런 가르침을 공개한다.

비사정(非射精)은 고도로 절제된 미학(美學)이라는 것 사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가운데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은 물론 밀티오르가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다.즉 비사정은 고도로 절제된 미학(美學)이라는 것이다.실천방법 중 하나는 상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비사정(非射精)에 있다. 여러런 비사정을 체험하면 남성도 여성 못지않은 오르가즘(계곡의 오르가즘)을 체험할 수 있을 뿐더러 명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부나 딸기부전 등 생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치유법으로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31가지의 비사정비법(非射精秘法)

1. 치골 마찰법 3. 허리와 둔부를 동시에 움직여라 3. 왜? 그날의 사정 감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가 4. 심인성 조부의 극복비법 5. 미간내 숫자시각화 6. 행위의 의식적임 또는 깨어있음 그리고 호흡법 7. 순간 심신이완법 8.가 최면법 9.호흡과 피스본운동의 비법 10. 사정(射精)의 감도 7~8인 때의 비법...31. 비법의 마지막 최상의 비법.

<비사정비법>, <발기부전>과 <조류>의 완벽한 극복

언뜻 보면 낯 뜨거운 이야기들도 가득하다. 하지만 무한한 우주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한들 인간에게 주어질 권 리인 성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 책은 묻고 있다. 실제 저자인 탄트라비전연구회 회장의 경우 오랫동안 남성이면 겪게 되는 성적 고민을 스스로 고쳐놓고 치유하던 중 탄트라에 몰입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비법서인 '탄트라 비전' (부제:비사정비법과 밀티오르가즘)은 전회주문 으로부터 판매하며 책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간단한 상담까 지 해주고 있으며(비법서 가격 29만원), 개인비법전수는 자신의 체질을 바탕으로 일대일 비법전수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전수비용 200만원)

탄트라비전연구회 02-720-0231 비법서가격 : 29만원

※비법서 구입시 남성단기 무료증정 우리는행 : 109-07-073480